

1940년대 전반기 시나리오에 있어서의 파시즘 담론 연구

- 국민, 국가, 젠더를 중심으로

박명진*

〈차례〉

1. 머리말
2. 전시동원체제 하의 영화정책
3. 왜곡된 판타지로서의 전사(戰士)와 유토피아 이미지
4. 인종(人種)의 정치학, 내선일체와 내선결혼에 나타난 기의(記義)의 잉여
5. 대체 가족으로서의 국민 국가
6. 맺음말

1. 머리말

史學者들의 考證에 依하면 大和民族과 朝鮮民族은 同祖同根으로서 一不離의 血緣的 聯繫가 있다. 그리하여 兩民族은 地理的 環境이 다른 故로 自然히 風俗文物이 달났지만은 併合 以來 一視同仁의 御仁政에 因하여 內鮮融和가 日進 統合하여 本來의 一體不離한 原狀에 還元하고 있는 것이다.¹⁾

* 중앙대 교수

1) 「內鮮一體와 佛教徒」, 『佛教』, 佛教社, 1940, 2면

1940년대 전반기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전시(戰時) 동원 체제로 몰아넣었던 시기이다. 제국주의적 야망을 확산시켜 가던 일제는 급기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조선 민중은 본격적인 임전(臨戰) 태세에 적응하기를 강요받았다. 위의 글은 소위 전시동원체제 시기에 일제가 조선 민중에게 강요하거나 회유했던 이데올로기의 기본 테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제는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일본 인종과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테제는 조선 민중을 전시 체제에 동원하는 목적의 수사학적 기교에 불과했다.

피식민지인들을 전쟁 체제에 동원시키기 위해 일제가 주목했던 프로파간다 중의 하나가 영화 매체였다. 그런 만큼 영화는 일제의 강압적인 전쟁 프로젝트에 상대적으로 더 종속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소위 ‘전시 동원 체제’ 시기의 식민지 조선에서 상영되었던 영화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발적인 ‘국민 국가(nation-state)’의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피식민지인들에게 일제가 생산한 선전영화는 왜곡된 ‘국민-국가’를 학습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 시기 영화는 전쟁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선을 몰아세웠는데, 이때 동원된 이데올로기는 조선과 일본이 동조동근(同祖同根)이기 때문에 내선일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영화가 이러한 내선일체와 징병 선전에 이용되었음을 물론이다.

파시즘과 영화 매체 사이의 긴밀한 공조(共助) 관계는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영화는 군중을 특정한 이데올로기로 통합하고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파간다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매체이다. 독일 나치 시대에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이 제작한 <의지의 승리>(1935)와 <올림피아>(1938)는 각각 나치의 업적을 찬양하거나 베를린 올림픽을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영화이다. 특히 스펙터클한 미장센으로 관객의 시선을 압도해버리는 <의지의 승리>는 파시즘의 대중 선동에 있어 영화만큼 효과적인 매체가 없음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전시동원체제

하의 식민지 조선에서 상영되었던 선전 영화는 독일 나치의 영화 전술과 거의 동일한 내포를 공유하고 있다.

이 글은 이른바 ‘신체제(新體制)’, ‘전시 동원 체제(戰時 動員 體制)’ 시기에 상영된 바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통해, 영화가 욕망하고 있는 파시즘적 ‘국민-국가’ 이데올로기, 전사(戰士)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의 구성, ‘국민-국가’에 의해 구성되는 여성성(女性性)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시기 영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영화의 물적 토대를 알아보겠다. 그 다음 조선에서 상영된 영화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일제 파시즘이 유포하려 했던 왜곡된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와 황국신민의 주체 구성 양상을 살펴보겠다.

2. 전시동원체제 하의 영화정책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전시 동원 체제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예술, 문화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본격적인 통제를 시작한다. 특히 영화 부문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관심은 지나칠 정도로 과잉되었다. 일제 파시즘은 영화의 대중적인 영향력과 중요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외상(外相)을 지냈고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한 바 있는 마츠오카 요우스케(松岡洋右)는 “백만언(百萬言)의 말과 글보다 영화가 제일이다 어떠한 고아한 문장이라든가 또는 귀로 듣는 것보다도 영화가 제일 빠르게 인간의 머리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영화는 국운을 좌우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의 경우 오락 기관이 적기 때문에 “영화의 지닌 영향력, 지도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뛰어나다. 영화의 중요성은 내지(內地)에서 갖는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몇 배”라고 보았다.²⁾ 내선일체를 통한 전쟁에서의 승리 쟁취를 위해 식민지

2) 森浩, 「朝鮮に於ける映畫に就いて」, 『映畫旬報』87, 1943, 4면 (이준식 「일제 파

조선의 영화는 일제 파시즘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시기 조선 영화의 상황은 잔혹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로테스크하고 부조리한 것이었다. 벤야민의 소위 ‘정치적 심미화’³⁾라고 부를 만한 일제의 영화 정책은 영화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1934년 8월, 조선총독부령 제82호 ‘활동사진영화취체법칙’이 발표되어 본격적인 외국영화 상영 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영화 상영 횟수가 현격하게 줄고 일본 영화의 진출이 급증하게 된다.

1939년 4월 일본 본토에서 영화에 대한 ‘문화입법’이라는 구실로 신영화법이 제정된다. 이 입법을 토대로 이듬해인 1940년 1월에 조선총독부 제령(制令) 1호로서 일본 영화령 중 제9조를 제외하고 모두 동법(同法)에 준한 ‘조선영화령’을 제정하여 동년 8월부터 실시한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본래 1931년 만주사변 발발 이래 식민지 치하의 사회 상황의 변동에 따라 취해진 결과로서 식민지 민중에 대한 계발, 선전 및 오락의 일익으로 영화의 사명이 중요하게 인식된 결과, 국민문화 발달에 기여하고 영화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허울 좋은 뜻에서, 영화 제작은 물론이고 흥행, 배급 측면에까지 통제가 미칠 수 있는 통제 중심의 입법이었다⁴⁾

외견상 제74차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포고령으로 1939년 공포, 실시되었던 일본 영화법을 모방한 것이었으나 그 시행세칙은 조선총독부에서 전년 7월 시안(試案)되었던 것을 도서과 사무관이 도일하여 일본 내무성과 문부성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보완, 수정된 것이었다 그 주요

시즘기 선전 영화와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1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702면에서 재인용.)

3) “파시즘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차원의 모순이 현현된 ‘사건’이기도 했지만 부르주아적 근대화가 인류의 무의식에 각인해 놓은 심미적 비전의 일종이기도 하다.”

백문임, 「‘정치적 심미화’ : 파시즘 미학의 논리」, 김철 외 엮음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76면

4) 佐藤忠男, 『日本 映畫史 第2卷 (1941-1959)』, 岩波書店東京, 1997, 21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映畫令>

조선의 제작, 배급 및 기타 영화에 관하여서는 영화법 중 제 1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同法에 의함. 단, 同法 중 勅令으로 됨은 朝鮮總督府令 주무대신으로 됨을 조선총독으로 함.

제2조: 영화의 제작 또는 영화의 배급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대신(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주무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화 배급업자에 대하여 외국영화의 배급에 관하여 그 종류 또는 수량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4조: 영화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의 검열을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고는 공중의 관람에 공하기 위하여 이를 상영할 수 없다.

제15조: 주무대신은 명령으로서 영화 흥행자에 대하여 국민 교육상 유익한 특정 종류의 영화의 상영을 시킬 수 있다. 행정관청은 명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흥행업자에 대하여 계발 선전상 필요한 영화를 교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을 시킬 수 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더불어 미국 영국 등의 외화를 상영 금지 조치시키고 유럽 영화의 경우도 철저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1942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령 제64호로 ‘조선영사기 조작 취체 규칙’을 발표하여 ‘영사기사면허제’가 실시되기도 했다. 이는 내용 검열을 주안으로 한 제법(諸法)과 더불어 흥행장의 단속을 영사 기사를 통해 관리하려는 목적을 두고 생겨난 면허 제도였다.

‘조선영화령’의 시행과 함께 조선 영화인들에게 족쇄를 가한 또 하나의 정책은 ‘조선영화주식회사’의 설립이었다. 1937년 8월 일본은 괴뢰 정

권인 만주국의 민간 영화업자들이 강제 통합하여 이른바 그들의 국책회사인 주식회사 만주영화협회를 창립하고, 10월 7일 만주 영화법을 선포하여 제작, 수출입 배급, 상영을 강제로 일원화했다. 1939년 4월 문부성에 영화과를 신설한 만주 영화촬영소를 짓고 일본국 제74차 의회에서 통과된 일본 영화령을 공포하게 된다. 이 영화령을 접수한 한국영화의 소관당국인 조선총독부 도서과와 조선군 사령부 보도부에서는 머지않아 한국에도 영화법이 공포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 공작에 나서는데, 이것이 1939년 10월 경성호텔에서 강제 발족된 관제 조선 영화인협회이다. 여기에는 조선영화주식회사(최남주), 고려영화협회(이창용), 한양영화사(김갑기), 경성영화 제작소(야나무라), 조선예흥사(서항석), 명보영화사(이병일), 조선구귀영화사(오리하타), 조선문화영화협회(즈무라), 경성발성영화 제작소(다카시마) 등이 가입했다.⁵⁾

1939년 일본 각의에서 만든 ‘문화입법’은 일본 영화계의 정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시 10여개사에 달하던 극영화 제작회사를 2개사로 통폐합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200여개소의 문화영화제작기구를 일원화한다. 조선은 일본 영화계의 통합 조치 이후 ‘조선영화령’의 독자적인 방침에 따라 영화 기구의 신체제를 확립하게 되는데, 영화 제작 기구라 총독부의 적극적인 지휘 하에 단일 기구 영화사로 정비된다.

당시 조선에는 10개사의 영화사가 있었는데, 이 중 3개사는 우리 자본 나머지 7개사는 일본자본이었다. 이들 10개사는 1940년 12월 5일 ‘조선영화제작자협회’를 결성하게 된다. 이 협회의 목적은 조선에서 시행되는 영화령에 따른 영화제작기구 정비에 대한 선책(宣策)을 협의하고 당국의 영화령 시행 정신에 순응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1939년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총독부 키네마」라는 문서는 1930년 이후 진행시켜온 영화 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총독

5) 高島金次, 『朝鮮映畫統制史』, 朝鮮映畫文化研究所(京城), 昭和18(1943), 7~9면

부는 1920년에 문서과 내에 활동사진반을 설치하고 영화 제작, 배급, 영사 활동 등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활동사진을 통해 최근 조선의 모습을 널리 내외에 소개하고 조선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며, 또한 내지(内地)의 풍물을 소개, 모국(日本)에의 친근감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대목이다. 식민 통치 초기에는 조선의 풍경, 관광, 풍속 등을 담은 기록 영화도 더러 제작되었으나 차차 식민지 교화, 황국 식민화, 내선일체 등을 강요하는 영화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그러다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전의(戰意) 양양, 군국주의 미화 등으로 진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국인을 전쟁터로 보내는 이른바 징병, 징용, 정신대 사업의 도구로 영화를 활용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조선영화협의회는 1940년 2월 11일, 조선일보사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총회에서 일본 영화인 연맹 가입 등의 안건과 함께 기능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는 영화인 등록 의무 규정과 아울러 기능증 발행 등을 실시키로 한 결의였다. 이에 따라 조선영화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영화인 등록이 1940년 12월 14일부터 실시되었다. 이는 사실상 기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조사에 주력하여 감독, 작가, 배우, 기타 모든 분야의 영화인들을 감시하려는 책략이었다. 기능증명서가 없으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면 이 땅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⁶⁾ 이 제도의 위력은 절대적이었다. 위원장에 혼다(총독부 경무국 도서과장 영화검열 책임자), 위원으로는 야노(사무관), 시미즈(이사관), 가라시마(총독부 편수관), 나카무라(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안중화(조선영화인협회 회장), 이규환(연출자), 안석영(연출자), 김한(연기자), 서월영(세도 한국인 촬영기사), 양세웅(간사에 오카다

6) 이영일, 「영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총감』, 대한공문사, 1976, 560면

(총독부 경무국 촉탁, 김성균(촉탁), 김정화(조선영화인협회 서기) 등이었으며, 1941년 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하는데, 이사장에 전회장 안중화가 재선, 이사에 안석영, 왕평, 이명우, 양세웅, 김일해, 위원회에 김한, 이규환, 이창용, 서월영, 김성춘, 모리타, 이신웅, 감사에 이재명으로 개편되었다

1941년 도오쥬오 내각이 성립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전 영화사를 해산하고 전시체제를 위한 단일 회사로 통합하라는 명령이 하달된다. 통합하지 않을 경우, 필름 배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 속에 제작자협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통합 문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월 17일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자본금 200 만원의 단일사를 창설한다는 원칙 하에 최남주, 이창용, 오리하타, 즈무라, 다카시마 등의 합병위원이 선출되고 통합회사로는 한국인 측 여섯 개, 일본인 측 네 개 회사가 구성되었다. 이 협회가 중심이 되어 1941년 7월 1일 일사(一社) 결성안이 나오게 된다. 동년 9월 10일에는 신회사 창립안 작성을 서둘러서 9월 12일 주식회사 조선영화제작회사 설립취의서를 총독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것이 10사 통합의 제작기구 일원화에 따라 생겨난 한반도에 있었던 유일한 영화 제작회사가 된다. 초대 사장으로 일본인 田中三郎이 되었다. 영화 제작은 조선영화령에 입각하여 종전과 같이 자유 제작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 및 총독부 산하에 별도로 설치된 ‘영화기획심의회’의 지도 하에 제작하게 된다.

신회사(新會社)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는 영화제작에 들어가기 이전에 총독부의 정책 반영에 따른 영화제작지도를 받아야만 했다. 영화기획심의회는 1942년 10월 26일 기안되어 총독부 경무국 내에 있는 문화조성단체인 ‘황도문화협회(皇道文化協會)’ 내에 설치되고 동 회장격인 三橋 경무국장이 초대 심의회장으로 취임되었고, 상임위원으로 총독부의 森 도서과장, 조선영화주식회사측은 中田晴康이 취임했는데 위원에 조선인으로는 유치진이 포함되어 있었다.⁷⁾

제1회 심의회회는 1943년 1월 18일 회장 대리출석한 森 도서과장 통

제로 반도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심의된 의제는 신회사에서 강제징병제 시행 기념작품으로 착수한 극영화 <젊은 모습>을 심의했는데, 군부로부터 馬杉 참모가 특별 임시출석을 하기도 했다.

조선영화령에 의한 주무관청은 총독부였으나 주로 영화행정업무부령을 담당하고 있던 곳은 경무국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에서는 신문, 잡지, 도서, 레코드 등과 함께 영화 검열, 각본 사전 검열, 우수영화 추천, 조선 내에서의 영화 제작과 배급의 지도 및 조선영화주식회사, 조선영화배급회사의 감시 지도 등을 맡아 했다.

3. 왜곡된 판타지로서의 전사(戰士)와 유토피아 이미지

전시 동원 체제 하의 선전 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선일체, 내선결혼, 징병실시’ 등의 수행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때 영화는 일제 파시즘 정권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프로파간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선영화인협회의 목적은 “일본 영화의 일익으로써 조선 영화 예술의 향상 발달을 도모하여 조선 문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內鮮一體의 實을 나타내기를 기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영화인협회의 보다 분명한 목적은 식민지 침략전쟁에 부응하는 영화 제작에 비협조적인 영화인들에 대한 정지 작업뿐만 아니라, 당시 각 영화사별로 소속되어 있던 영화인들을 하나의 울타리 안으로 묶어서 통제 가능하게 만들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⁷⁾

전쟁에 조선 청년들을 차출해 내기 위해 일제는 강압적인 정책과 동의 체제를 병행하면서 헤게모니를 구축했는데, 일제가 판단하기에 영화만큼

7) 高島金次, 앞의 책, 127~128면

8) 김학수, 『스크린 밖의 영화사①』, 인물과사상사 2002, 117면

확실한 도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병제’는 ‘내선 일체’론과 매우 밀접한 내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식민지인에게 무기를 들게 하는 것을 뜻하는 징병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완전한 일본인이 되었다는 확신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제는 조선인의 황민화 정책의 성과에 대해 만족할 만한 평가를 내려본 적이 없을 뿐더러, 조선에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는 단계에서도 군부는 징병제의 실시는 수십 년 후의 일로 상정하고 있기까지 했다.⁹⁾

실제로 징병제가 시행하기로 결정된 후에도 일본 군부 내에서 그것을 재평가하지는 의견이 나왔다. 이것은 군대에서 조선인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무기 사용법을 익힌 조선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통치를 위협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일본인들에게 ‘명예로운 황군’의 순혈(純血)이 조선인에 의해 침해되는 일은 용납하기 힘든 일이었다. 만약 조선인이 군대에서 훈장이라도 받게 되면 멸시하기가 곤란해지고, 조선인이 장교가 되면 일본인이라도 해도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일본 육군에는 중장까지 올라갔던 이를 비롯하여 지원 등을 통해 이미 입대해 있던 조선인 장교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¹⁰⁾

그런 의미에서 징병제를 선전하기 위한 일련의 친일 영화는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부류의 영화들은 일종의 판타지로서, 현실에 대한 잉여 담론으로서 관객 주체를 호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징병제를 선전하는 영화는 식민지 조선인의 행동에 대한 하나의 참고(參考) 수준을 떠나 그 자체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기계’ 그 자체가 된다.

9) 崔由利, 『日帝 末期(1938-45년)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114면.

10)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조현설 옮김 소명출판, 2003, 333면.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테크놀로지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파시즘과 전체주의에 고유한 표상환상, 요컨대 저 거대한 규모의 투명성이라는 것이 영사기와 확성기의 시대에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도 히틀러, 무솔리니, 마오쩌둥의 미디어화된 이미지와 목소리는 인간이 기계를 사용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형태를 하고 움직이는 기계 그 자체인 것이다.¹¹⁾

그러나 이때 ‘영화·기계’가 대상으로서의 식민지 조선인을 완벽하게 포섭하거나 근절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이 시기 친일 영화는 ‘가상 현실’로 환원될 수 없는 ‘실재’의 불균질한 틈새들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영화는 ‘결핍된 현실’에 대한 하나의 거울상으로 ‘형식논리상의 진리’를 가공해 낸다. 따라서 영화의 과잉 이미지는 현실의 어두운 심연을 판타지로 치환한 가공의 세계라 할 만하다.

이 시기 선전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용기의 소유자로 나온다. 이들에게 있어 개인적인 고민이나 실존적인 회의 따위는 일체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사람은 ‘황국신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성전(聖戰)’ 수행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벽면

포경선에 자리 잡은 늙름한 망부의 사진.

春 川 : 자네! 아버지를 잊어서는 안 되네. 돌아가신 아버지는 말이지 포수로서는 반도는 물론이고 본국에서도 소문난 명인이었네. 자네도 알고 있을 거야. 그것이 5년 전이야. 상처 난 손으로 미친 듯이 날뛰는 큰 고래와 일대일로 싸우면서 마침 2번째 작살을 걸어 방아쇠를 손에 건

11) Rey Chow, 『원시적 열정』, 정재서 옮김, 이산, 2004, 62면

순간 역과의 충격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지.
훌륭한 순직이었지. 그 훌륭한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고 옛날에 신세
졌던 우리 뱃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지 않은가.

貞 順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돌아가신 아버지나 여러분에게
면목이 없어.

春 川 일어나라 일어나. 조금 열이 나는 정도야. 두통이 다 뭐야. 이 대
전쟁 중에. 한사람이 쓰러지면 그만큼 나라의 생명력이 약해지는 거
야.¹²⁾

기타무라소좌 : 아드님으로부터 소식 없었는가요.

영 자 : 요즘은 전혀 없어요.

기타무라 : 나한테는 왔는데…….

운 태 : 아들은 소좌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허허.

복 순 : 나까지도 잊어먹었다니까요.

영 자 : 그래요. 몽땅 잊어먹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기타무라 : 훌륭한 일본군이니까요.

하고는 주머니에서 엽서를 꺼내서 읽게 한다. 영자, 읽는다

요시무라 : 일등병은 건강합니다. 전자戰地에 온 지 2년 됐어요. 오늘은
대포 소리가 안 들리는 날입니다. 기관총을 안 쏘는 날은 기분이 나빠
요. 이제 막 출동입니다. 힘차게 출동하겠습니다.

복 순 : 그것뿐이냐.

영 자 : 네.

운 태 : 시원시원한 놈이구나. 하하하. (八田尚之, <젊은 모습>, 228면)

12) 關川周, <巨鯨傳>, 이재명 외 엮음, 『해방전(1940-1945) 상영 시나리오집』,
평민사, 2004, 21면.

이후 작가, 작품명, 인용 면수만을 기재한다

에이스케에게 ‘반장님, 오늘밤 저의 계집애 같은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오. 아이 아빠로서,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인간인 이상 누구나 슬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충격 때문에 쓰러질 뻔도 했습니다. 다만, 뭐야 이런 일로 군인의 본분을 망각해서 되겠는가 하고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도 무심코 눈물을 흘린 것은 제국군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라 말하고, 다시 ‘그런데 저의 눈물은 죽은 애에 대한 애착의 눈물이 아닙니다. 제 아이는 일본애입니다. 일본의 사내를 잃은 것이 자꾸자꾸만 안타까웠습니다.’ (日夏英太郎, <너와 나>, 183~184면)

<거경전>에서 ‘정명’은 고래잡이 배 타기를 두려워한다. 이러한 ‘정명’에게 그의 어머니 ‘정순’과 포수 ‘춘삼’이 멸사봉공의 정신을 훈계하고 있다. 이때 ‘바다’와 ‘고래’의 이미지는 각각 ‘태평양 전쟁’과 ‘영·미 연합군’을 상징하고 있고, ‘정명’은 나약한 전사(戰士)를 대표하고 있다. 고래잡이를 하다 바다에서 죽은 ‘정명’의 아버지는 일제 파시즘이 식민지인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전사(戰士)의 전형이 된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사지(死地)로 밀어 넣고 있으며 ‘춘삼’은 죽음을 성스럽게 미화시키고 있다.

<젊은 모습>은 이보다 더 멀리 나간다. 기타무라 소좌는 아들을 전투에 보낸 가정을 방문해 그의 편지 내용을 알려준다. 자식을 출정시킨 가정의 부모는 “기관총을 안 쓰는 날은 기분이 나빠요”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아들의 용기에 흠족해 한다. 아들은 ‘소좌를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황국신민의 자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때 ‘가족’이라는 기존의 개념은 ‘국가(國家)’라는 상위개념으로 완전히 대체되며 이 국가에 속한 황군(皇軍)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戰士)로 재생산된다.

<너와 나>는 아예 혈연의 정마저도 포기한다. 지원병 ‘기노시타 타로(木下太郎)’는 훈련 중에 어린 아들을 잃는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중요

한 훈련 중인데 이 일을 알리면 모처럼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183면)았다. 기노시타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내애를 잃는 것”이 괴로운 것이다.

이 시기 선전 영화의 영웅상은 성인 계층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제 파시즘은 당시 일본에 대해 충실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는 조건하에 놓여 있던 조선의 청소년들 중에 일본과 동일한 일본인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확대해석하고 있었다.¹³⁾ 이에 따라 일제는 이러한 영화를 통해 일본 정책에 충실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중학생이나, 어린이들도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소년 전사’라고 부를 만한 이들은 전쟁의 영웅을 꿈꾸고 있거나 노인에게 ‘묵도(默禱)’의 규율을 가르치는 계몽 주체로 탄생한다.

곤 고 : 뭘 그렇게 멍청하게 있어

야나기 : 멍청히 있는 게 아니야

곤 고 : 거짓말 마

야나기 : 정말이야. 난 지금 군대 가서 적의 토치카를 점령하고 만세 부르는 걸 상상하고 있었어.

곤 고 : 넌 어떻게 맨 날 똑같은 공상만 하나

야나기 : 네 건 수시로 바뀌냐

곤 고 : 응, 점점 발전하는 중이야. 요즘엔 적의 탱크를 뺏어서 그걸로 적진에 돌입하는 장면이야.

야나기 : 그것도 멋지구나. ……고야마, 너는 어떤 장면이냐

고야마 : 좀 말하기 힘들어

야나기 : 숨기지 마. 같이 전우가 되잖아.

곤 고 : 이제 2년째야

고야마 : 내 건, 미안하지만 수훈 갑(甲) 표창을 부대장님한테 받고 감격

13) 佐藤忠男, 앞의 책 120면

하는 거야.

(八田尚之, <젊은 모습>, 236~237면)

21. 부근

애들이 유리구슬 놀이를 하고 있다가 ‘지원병이다. 지원병이다’ 하고 내닫는다. 마침 정오 사이렌 지원병 교관의 구령에 맞춰 보행을 멈추고 목도 시작. 달려온 아이들 중 한 애가 서서 ‘야, 목도 시간이야’ 말하자, 아이들 일제히 멈춰 서서 목도를 시작한다. 여기를 지나가는 반도 노인 한 명. 아이가 노인의 소매를 끌면서 조선말로 ‘아저씨 목도 시간이예요’ 노인 의아한 표정으로 ‘목도!’

아 이 : 예, 매일 정오에는요, 영령의 명복과 전선에 있는 군인아저씨들의 무운장구를 비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에 맞춰서

노인 이제야 깨닫고 경건한 기분으로 혼을 넣어 목도한다.

(日夏英太郎, <너와 나>, 190면)

이쯤 되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검투사(劍鬪士)라 할 만하다. 이들에게는 전통적인 의미의 ‘부모와 자식간의 정, 형제애, 우정’과 같은 사적私的 감정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어휘 자체는 존속하고 있었지만 그 내포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전시 동원 체제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정, 형제애, 우정’ 등의 기표는 전혀 다른 기표로 미끄러져 흘러갔던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내러티브의 기의 대신에 황국신민의 의미장 속으로 신속하게 빠져 들어갔다. 이 일련의 기표들은 ‘천황과 신민의 상하관계’로 정착되도록 강요받게 된다. 천황의 욕망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되는 새로운 주체는 ‘초인(超人)’의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초인’의 대중적 특성에는 연극적이고 외적인, 다시 말해 초인보다는 ‘프리마돈나’ 식의 요소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형식주의와 ‘최고 계급’이고자 하는, 특히 그렇게 기억되고 선언되기를 바라는 유아적 야망이다.¹⁴⁾

그러나 이들 영화에 나타나고 있는 ‘신념의 과잉’과 그 영화들이 식민지 조선 민중에게서 얻기 원하는 ‘유아적 야망’은 완벽하게 실현될 수는 없었다. 현실 세계의 무수한 균열 지점을 봉합하고자 강행하는 계몽주의적 판타지는 그 지나친 허구성으로 말미암아 식민지 주민의 ‘감정구조’와 갈등을 겪기 쉬운 것이었다. 일제 과시즘은 식민지 조선 민중을 상대로 천황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황군(皇軍)의 선택을 신화화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중국 화북 지역에서 조선인 지원병 최초로 전사한 이인석의 죽음을 신성한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징병에 대한 조선 민중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12. 아영진지 낫

용장한 황국신민 체조를 하고 있는 제1중대 제2중대 일부는 교관을 둘러싸고 고 이인석(李仁錫) 상등병의 전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분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전선에 가서 선배의 원수를 갚고 싶어!’

‘음, 치가 떨려.’ (日夏英太郎 <너와 나>, 184~185면)

훈련소에서 이인석 상등병의 전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원병들은 선배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전의(戰意)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천황을 위해 전투에 나가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병기(兵器)’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전혀 달랐다. 이인석의 고향에서 잡화상을 하고

14) Antonio Gramsci, 『대중 문학론』, 박상진 해제, 책세상, 2003, 106면.

있는 유재혁이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징병 제도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민족도 모르고 동포도 구분 못하는 崔郡守야. 이 노망한 놈이 현재 군수로 간판을 걸고서 일본놈에게 아첨하면서 군수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민족도 모르고 동포도 구분 못하는가. 이놈, 『京城日報』에 게재했던 사실을 보아라. 이인석을 흉계로 죽이기 위해 병대로 내보내 年老한 부모와 처자가 늘그막에 마음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구실로 빈곤한 李君을 戰場에 보내 마침내 戰死시키고서 일본 놈에게 좋게 보이려고 『京城日報』에 그 같은 흉악하고 더러운 언어를 기재했는가. 조선 청년이 일본 놈 때문에 전사 ... 그러고도 李君을 장렬하다고 하는가.¹⁵⁾

여기에서 예를 위의 글과 이 시기 영화는 현상의 양면을 가리키고 있다. 의미의 과잉으로 이루어진 친일 영화는 징병 제도에 대한 조선 민중의 무관심과 저항 의식을 은폐하고 의구심을 봉합시키기 위해 가공해 낸 가상 영화에 불과하다. 문학적이건 철학적이건 또는 영상 미학적이건 서사는 욕망이기 때문에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반대로 서사는 기원이 폐쇄된 역사의 풍경을 끊임없이 재현할 뿐이다. 서사는 리얼리티 그 자체가 아니라 언제나 순차적 간격을 전제로 구성되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다. 재현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탈선이라면, 서사는 리얼리티에 대한 배반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서사는 리얼리티에 비해 항상 결핍된 그 무엇으로 불릴 수 있다.¹⁶⁾ 선전 영화는 그 메시지에 대한 강박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현실에 대한 리얼리티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것은 일제 파시즘이 요구하는 영웅, 초인 전사들이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15) 柳在赫, 『思想彙報』 제21호, 1939.12, 69면 (변은진 「조선인 군사동원을 통해 본 일제 식민정책의 성격」, 『아세아연구』 제1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3, 221면에서 재인용.)

16) 이택광, 『한국문화의 음란한 판타지』, 이후, 2002, 61면

4. 인종(人種)의 정치학, 내선일체와 내선결혼에 나타난 기의(記義)의 잉여

내선일체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합병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테제로 유지해왔던 키워드였다. 이 원칙은 3.1 운동 직후인 1919년 8월 19일 일본의 대정(大正) 천황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天皇의 赤子로서 전혀 차별하지 않고 一視同仁의 입장에서 통치하겠다’는 요지의 조서(詔書)를 발표하면서 식민지 통치 시기의 기본 입장으로 정착되었다. 1931년에 조선 총독에 부임한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동화주의의 원칙을 ‘내선융화(內鮮融和)’로 내세웠다 이는 후의 내선일체보다는 조선인의 문화를 일면 존중하는 듯한 상당히 온건한 융화론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미나미 지료(南次郎)에 의해 내선융화론은 내선일체론으로 전환된다. 내선일체론은 내선융화나 내선평등과 같은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 일본 국체(國體)를 기초로 한 유기적, 내면적 일체론이라는 보다 강력한 형태의 통치 이념이다. 이것은 대륙진진병참기지리는 군사적, 경제적 요구에 입각한 현실론적 명제였다.¹⁷⁾

따라서 내선일체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속되는 일제의 침략 전쟁에 조선인들을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등장하고 있는 일제의 여러 가지 지배정책들은 내선일체라는 용어를 통해 일제가 선전하고 있던 ‘內鮮無差別平等’에 도달하는 것과는 전연 거리가 먼 것이었다.¹⁸⁾ 당시 ‘조선군사령부’에서 조선인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내선일체론과는 모순되는 일제 당국의 본심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1927년 3월에 중

17) 崔由利, 앞의 글, 6~15면

18) 최유리, 「일제 말기 황민화 정책의 성격 - 일본어 보급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5, 234면.

래의 조선인의 성정(性情)에 관한 조사를 모아 비밀자료 「朝鮮人の思想と性格」(조사자료 제20집)을 출판한다. 이 자료의 제2편 「朝鮮人の性情」에는 조선인의 종래의 부정적인 측면이 모여져 있다.

방중, 사치, 낭비, 사행(射倖), 표면적, 부화뇌동, 모방성, 무원기(無元氣), 나갑(懦怯), 회색(灰色), 보신술(保身術), 이기적, 진정성 부재, 실행력의 결핍, 감격성(感激性) 의뢰심, 은의감(恩義感)의 부재, 독립심 부재, 감각의 둔함, 자살¹⁹⁾

조선에서의 지원병 제도와 징병제 실시, 즉 “조선인의 손에 근대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것”은 실시 단계에서부터 일본 정부 당국은 물론 민간인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당시 ‘조선군사령부’에서 조선인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위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부정직, 불성실, 사상 복잡, 人心의 기미를 살핌, 파악과 조종이 교묘, 동정심 결여, 자기에게 이익 되지 않으면 남에게 친절을 다하지 않음, 타산적, 강자에 아첨하거나 영합하고 약자는 고려치 않음, 감사·보은의 念, 희박, 충군애국·희생봉공 결여, 의무 관념과 책임관념 박약,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일시적·고식적, 단결심 결핍 會內 會를 만들어 상호 암투, 陰氣, 책모적, 허세적, 겸양의 미덕이 적고 오만,公私 혼돈, 기강문란의 풍습, 敬信의 念 희박, 오로지 儒敎에 심취하여 형식을 좇음, 신앙심 없고 정신적 道義 관념 결여, 對者의 성격, 신념을 알려고 노력, 비밀을 과장하고 누설하기 좋아함, 의논을 좋아하는 性癖, 의혹감 있고 시기심 強유언비어²⁰⁾

19) 南宮鎮,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 勉誠出版 東京, 2002, 96 ~97 면

20) 변은진, 앞의 글, 213 면

이처럼 부정적인 성격의 조선인을 황군으로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것은 일제의 전시 동원 체제의 기본 정신에서 매우 불안한 근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 당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선인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조선인 군사동원’을 언급할 때는 항상 조선청년도 ‘훌륭한 황국신민’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모순을 범하였다.²¹⁾ 결국 내선일체론은 조선 민중을 전시 체제에 복무시키기 위해 그들이 내놓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이 시기 선전 영화는 이러한 내선일체론을 홍보하고 선전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과의 교류, 혼합, 상호 존중과 같은 내용을 중심 이미지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친일영화에 나타난 조선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과 관심을 표현한 예이다.

①

미즈에, 주변을 둘러보고 후사코에게 ‘언니는 뭐든지 조선식이네’
 후사코 웃으면서 ‘그이 취미야. 배추절임도 우리 집에선 김치가 아니면 안 돼.’

(日夏英太郎 <너와 나>, 198~199면)

②

시즈코 : 자, 다 됐습니다. 드시도록 하세요
 소 좌 : 드세
 오오키 : 잘 먹어볼까.
 시즈코 : 어서 드세요
 오오키 : 마쓰다 군, 사양 말고 먹재이.
 하며 식탁에 앉는다. “햐야, 군침 도네.” 라며 김치를 태연하게 먹는다 맵지도 않은 듯. “자네, 안 먹나.” 라며 마쓰다에게도 권한다.

21) 위의 글.

(八田尚之 <젊은 모습>, 232면)

③

거기 후사코와 한복 입은 미즈에와 기모노를 입은 백희가 들어온다.

료헤이 눈을 크게 뜬다.

미즈에, 소매를 펼쳐 보이면서 ‘어때요 형부, 잘 어울리죠.’

료헤이, 빙긋 웃으며 ‘잘 어울리고 말고 여기 좀 와서 앉아 봐.’

미즈에, 솔직하게 에이스케 곁에 가 앉는다.

(日夏英太郎 <너와 나>, 207~208면)

④

오오키 : (아내가 아이 업은 모습을 보고) 어깨 괜찮냐?

후미코 : 괜찮아요. 싱싱해요.

오오키 : 당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아아가 답답할 거래이.....아이를 업을

때는 여기 여자들 하듯이, 허리에 붙들어 매는 게 좋데이

후미코 : 왜요?

오오키 : 당신도, 아아도, 가슴이 안 놀리니까, 건강에 안 좋겠나.

후미코 : 그래요?

오오키 : 하모 허리에 매 보레이

후미코 : 이상해요.

오오키 : 한 번 해 보레이

후미코 : 이상해

라면서, 조선식으로 애기를 허리에 걸쳐 매 본다

오오키 : 그 쪽이 위생적이데이. (八田尚之 <젊은 모습>, 235면)

①과 ②에서 ‘김치’라고 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음식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을 볼 수 있다. ③은 보다 구체적이다. 한복 입은 일본 여성 미즈에와 기모노를 입은 조선 여성 백희를 통해 양국 문화가 서로 교류되고 존

중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에서는 조선식으로 포대기를 매는 것이 오히려 위생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의 전근대성을 끊임없이 경멸하고 타자화했던 일본이 조선의 위생 문화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과격한 입장 변경이라 할 만하다. 이와 같이 조선 문화에 대한 일제의 시선이 급작스럽게 호전되고 있는 것은 전시 동원 체제에 임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 상황이 매우 다급하고 불안했음을 역설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일제 당국은 징병제 실시를 두고 걸으려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진정한 ‘내선일체’를 구현한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우려와 불안을 종종 표명하였다. 일제 측의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알고 있던 조선인은 오히려 ‘내선일체’라는 명분을 이용하여 ‘차별대우’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다.²²⁾

만주복 차림의 왕연이 열심히 화덕을 지피고 있다. 유코, 요리 준비며 만들어진 술과 음식을 운반하느라 정신이 없다. 옥선이기도 도와주었다 꽤 활한 경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주재소의 안뜰

환한 달빛이 비쳐 나뭇가지에 걸쳐놓은 램프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아사노 순사의 부임을 환영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환영회가 열리는 중이다. 다카츠가 있고, 구마자와, 임, 김도 있다

(八木隆一郎 <望樓의 決死隊>, 119면)

위의 작품에서는 조선 민족, 중국 민족, 일본 민족이 화목하게 집단을 이루며 유토피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대동아공영권에 대한 제국주의적 유토피아를 가공한 장면이다. 역사와 정치적 배경이 삭제된 이 작품의 미장센은 현실적 토대와 동떨어진 판타지를 과잉

22) 위의 글, 218면

생산해 내고 있다. <망루의 결사대>에서 조선인 병사는 일본 병사와 어떤 인종적 차별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일본인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로 부각되기까지 한다. 이처럼 조선인에 대한 호의적인 묘사는 내선결혼 이데올로기까지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섬세하게 관찰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망루의 결사대>(1943)에서 항일 유격대의 조선인들은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비적(匪賊)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한국인은 자신의 부친을 죽인 유격대 동지의 흉악함에 놀라 관대한 일본인에게 협력하고 마는 청년으로 그려지거나 마을에 불을 지르는 등 야만스러운 행동을 하는 비적으로 그려지고 있다.²³⁾

그러나 <망루의 결사대>에서 조선인을 비적(匪賊)으로만 묘사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인 국경 수비대 경찰을 새로 전입해 온 일본인 경찰보다 더 우월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의 목적은 조선 민족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지나칠 정도의 과장을 섞어 ‘내선일체’의 가상 미래를 선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국내외 상황은 조선의 국경을 경비하는 것에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국경 경비라고 해도 소비에트와의 경계 지역이라면 문제는 자연히 다른 것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평안북도 압록강 하류 지역의 경비가 이 중대한 시기에 긴급한 과제였을 리는 없었다. 오히려 남방 제일선 전투를 주제로 한 작품이 요청되어야 하는 것이 당시 일본인의 일반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²⁴⁾ 따라서 이 영화는 당시 실제 상황과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내러티브를 선보였던 것이다. 당시 잡지에

23) 정수완, 「일본 영화 속에 나타난 한국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38면.

24) 高崎隆治, 『文學のなかの朝鮮人像』, 青弓社 東京, 1982, 110 면

실린 영화 선전 해설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도 산업의 비상한 발전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압록강 수전(水電)의 건설과, 무산(茂山) 광산을 채굴하는 데서도 이해된다. 내선일체의 열매가 여하(如何)히 수행되고 있는가는 앞서 발표된 바 있는 징병제도의 실시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 위대한 성과의 뒤에는 묵묵히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 온 국경경찰관의 절대적인 기여가 있었다.²⁵⁾

일본의 우생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들은 잡혼(雜婚)의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했다. 그들이 보기에 일본인처럼 우수한 인종이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친혼만으로는 형질의 열화(劣化)나 적응력의 저하를 초래하기 쉬웠다. 따라서 그들은 근친혼의 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족과의 ‘적절한’ 잡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²⁶⁾

1938년 8월 총독부에 ‘시국대책협의회’가 설치되어 「내선일체의 철저에 관한 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 받는다. 이에 「내선인의 통혼을 장려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일」 등 12 항목이 답신되었다. 1939년에는 박남규에 의해 ‘내선일체 실천사(內鮮一體 實踐社)’가 결성되고, 잡지 『내선일체(內鮮一體)』에 의해 「내선결혼 창도 실천(內鮮結婚 唱導 實踐)」 등의 슬로건이 게재된다. 1941년 3월 21일에는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를 기하여 각 도의 연맹을 통하여 기념품으로서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겸 국민총력조선연맹²⁷⁾ 총재가 휘호한 내선일체를 표현한 족자와 표창장을 수여, 결혼식에서는 경찰서장 등이 참가했다.²⁸⁾

25) 『日本映畫』, 1943년 5월호 (위의 책, 111 면에서 재인용)

26)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內鮮) 결혼’ 장려 문제」, 『일본학연보』 제3집 일본연구학회, 2002, 260면.

27) 1938년 7월의 결성 당시에는 명칭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었다

28)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東京), 2002, 177면 ;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內鮮) 결혼’ 장려 문제」, 『일본학연보』 제3집 일본연구학회, 2002, 283면.

그러나 이민족간의 잡혼, 즉 내선결혼의 진정한 목적이란 내선인 간의 통혼을 장려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조선의 호적 제도의 점진적 내지화(內地化), 그리고 조선인을 법적 차원에서 일본인으로의 동화 가능성에서 배제하면서 내선 결혼자나 양자(養子) 연조(緣組)의 당사자들에게만 이를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존재를 동화주의의 선전에 이용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²⁹⁾ 조선 민중들은 식민지 시기 초부터 내선결혼을 합방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즉, 내선결혼이 조선민족 말살의 수단이며 일제로부터 강요받는 행위라는 이미지가 이미 널리 심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조선 민중들의 민족의식과 결합하여, 일본민족과의 통혼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며 ‘민족적 주의로만 추찰’하는 등, 내선결혼에 대한 거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³⁰⁾ 결국 한쪽에서는 민족의 독자성을 말살시켜 동원하자고 했던 데 비해 다른 한쪽은 이민족이 유입되는 것을 기피하고 차별의 근거인 민족의 구별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³¹⁾

따라서 내선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동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혼을 통해서가 아니면 내선인간의 융화는 불가능하다는 지배층의 이러한 인식은, 일제가 표방하였던 동화주의가 당시의 조선사회의 현실과는 괴리된 것이었다.³²⁾ 실제로 일제는 대한제국의 명칭만을 ‘조선’으로 바꾸고 오키나와와 같은 일본의 한 지방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 현

표창장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內鮮結婚을 實行하여 國民總力運動에 關하여 內鮮一體의 促進上 他的 模範이 되기에 充分하여 이에 紀念品을 贈呈함. 昭和 16年 3月 21 日”

29) 와타나베아쓰요(渡邊 淳世),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7면.

30) 위의 논문, 67면

31)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앞의 책, 336면

32) 와타나베아쓰요(渡邊 淳世), 앞의 논문, 17면.

실적으로 조선인의 국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처럼 조선에 국적법은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외지(外地)로서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1920년대 내선결혼의 장려는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면서 ‘족내혼’과 같은 인상을 주려고 하였다. 명치 정부는 ‘국민’을 창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체론(國體論)을 통하여 천황가(天皇家)를 총본가(總本家)로 하는 단일적이고 순수한 기원의 일대가족국(一大家族國)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려고 했다. 1928년 조선총독부가 교사를 위하여 간행한 『보통학교 지리보충교재 참고서』를 보면 거기에는 조선을 일본의 ‘조선지방’으로서 일본의 류큐 지방, 규슈 지방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지역적으로는 중부, 북부, 남부로 구분하고 조선인들을 ‘주민’으로 규정하였다.³³⁾

일제는 조선인을 일본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만 ‘제국신민’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러시아의 연해주나 중국의 동북부 등에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 특히 중국의 간도 지방에는 조선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을 주장하는 조선인이 이중 국적의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었다는 사정에 유통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리하였다. 일제 측에서 보면 만주침략의 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조선인의 일본 국적으로부터의 이탈을 저지할 필요에서 일제는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공법상의 일본 국적을 부여하지는 않은 채, 막연하게 일본신민(日本臣民)으로 규정함으로써 러시아령이나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자국인(自國人)’이라 하여 영사재판권을 주장하는 등 침략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최대한 ‘픽션으로서의 일본국적’을 이용하였다.³⁴⁾

일제는 일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의 수탈에도 ‘합법성’을

33) 최석영, 앞의 글, 264~269면

34) 尹健次, 『日本國民論』, 筑摩書房, 1997. (위의 글, 268면에서 재인용.)

부여하기 위해 ‘식민지’라는 정치적, 경제적 용어 대신 법적 행적적으로는 ‘외지(外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지란 ‘일국一國의 영토 중에서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전국적인 보통 통치방식의 주요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 통치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예외적 통치하에 있는 ‘인역(人域)’, 즉 ‘외지에 본적을 둔 일련의 신민’을 ‘외지인(外地人)’이라 규정했다. 법률상 ‘조선인’이란 조선에 본적을 둔 제국신민으로 규정했다. 이 용어들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의 자기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황국신민화’, ‘내선일체’에 의한 동화정책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장애요인들로 인해 일원적으로 지배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지역(地域)과 인역(人域) 면에서 이중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지’, ‘외지인’ 규정에 기초하여 1930~40년대에 줄곧 강화되어간 행정 및 법률체계의 정비 역시 조선인의 각종 노동력 동원과 군사동원을 위한 전(前) 단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³⁵⁾

료헤이 : 감자(芋)란 것은 대체로 부인이라는 의미라서 말이지 즉 부인이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과 같이, 감자도 아들 감자, 손자 감자를 낳아 번식한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지.

(중략)

료헤이 :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인간과 감자의 관계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거기서 말이지요, 감자도 아들 감자도 손자감자를 만들어내는 놈이 역시 좋은 감자이니, 인간도 마찬가지로 언제더라, 어느 부부가 자식을 16명이나 두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온 적도 있지만, 16명은 특수한 예라 하더라도 적어도 5명은 필요하겠지요.

에이스케 :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보상도 빨리 자녀분을.....

35) 변은진, 앞의 글, 204~205면

료헤이 : 아니 그 얘기를 하시면 나는 피로워, 평생 소출이 없는 셈이니
말이지, 후사코, 우리는 감자보다 몇 배는 못 낫지. 하하하.

후사코 : 그래서 우리가 미즈에한테 소망을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日夏英太郎, <너와 나>, 212~213면.)

위 작품의 내용은 이 시기 조선총독부의 내밀한 욕망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인 남성과 조선인 여성의 결합이 아닌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과의 결합은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의 장려책과는 무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의도하였던 목표의 달성은 조선총독부 자체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이 ‘먼 장래의 희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부모, 친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축복 받지 못하는 결합이었던 만큼 많은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³⁶⁾ 그러나 현실적인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 속의 풍경은 유쾌한 유토피아를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현실적 결핍에 대한 상상적 대리충족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59. 구보 택의 뒷마루

후사코 : 저 가네코라는 분 여기 분이죠

료헤이 : 그래

후사코 : 그런데 글자가 이상하잖아요

료헤이 : 모르면 가만있게. 지금 조선에 옛날식 감(金)상이나 박(柏)상이라는 이름이 있어?

후사코 : 아아 창씨를 했군요

료헤이 : 그렇지. 당신은 반도에 와서 5년이나 됐는데 그것도 몰라서 어떻게 해?

후사코 : 미안해요

36) 최석영, 앞의 글, 299면

료헤이 : 그런데, 좋은 청년이자

후사코 : 좋은 분이네요.

료헤이 : 미즈에도 만족스런 눈치야.

후사코 : 재는 도대체 사람을 차별할 줄을 전혀 모르는 애라서요.

료헤이 : 솔직하잖아. 그래서 얼굴이 밝아.

후사코 : 그래도 호적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 시골 숙부는 어떠실는지.

료헤이 : 반대가 있으면 내가 설득하지. 아까 편지에도 그랬지 않은가. 내지 사람이 좀더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후사코 : 조선의 정말 좋은 점을 내지 사람들은 전혀 알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호적 같은 걸 복잡하게 따지죠.

료헤이 : 그러니까 조선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실천해서 그런 구폐(舊弊)를 고쳐야지 잘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내선일체는 소리만으로 끝나는 거야. 복잡한 이유 달 필요 없이, 먼저 실행하는 거야. 난 호적법이 개정되면 원적을 충청남도도 옮길 테야. 당신도 분명히 마음을 정해 뒤.

(중략)

료헤이, 만족스러운 듯 ‘굉장하네. 내 아내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제신이 특히 부여에 서 모셔지고 있는 건 무슨 까닭일까’

후사코 웃으며 ‘어머, 애들 시험도 아니고, 그거야 요즘 당신이 말씀하시는 내선일체 한 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료헤이, 호쾌하게 웃는다. 그리고 ‘그런데 말이야, 내선결혼은 우생학적으로도 매우 좋대. 후생성에서도 총력연맹에서도 특히 내선결혼을 장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日夏英太郎, <너와 나>, 207~208면)

1943년 후생대신의 명령에 의해 후생성 연구소 인구민족부(人口民族部)는 3천 항이 넘는 「아마토 민족을 중핵으로 한 세계정책의 검토」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혼혈방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진출지역민족과의 혼혈은 ‘우생학적 고려’를 빠뜨렸기 때문에 “동화정책의 미명하에 실질적으로는 도리어 아마토 민족의 통일성을 깨고 문화수준을 저들의 위치까지 저하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스스로 지도자의 의식과 힘을 방기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한다.³⁷⁾ 따라서 일본에서의 자보보국(子寶報國³⁸⁾이라는 슬로건은 액면 그대로 조선에서 실행될 수 없었다. 적어도 조선에서 일제가 정책적으로 다산을 장려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일본의 ‘낳는 어머니’라는 위치보다는 징병이나 징용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발 대상으로서의 위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형국이었다.³⁹⁾ 결국 <너와 나>는 사실과 정반대의 담론을 유포함으로써 내선일체를 통한 징병제 실시의 성공을 꾀하고 있는 작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작품은 내선일체를 상징하는 기념비로 세워지기를 욕망하고 있고, 의혹에 가득 찬 식민지 민중의 내적 혼란을 잠재우는 기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파시즘 정권의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사회적 형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화관은 도시 국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광장이나 집회장, 전 세계에서 온 이주민들이 서로 합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기념비이다. 이 거대한 사찰들 속에서 영화의 핵심적 능력은 시각의 카오스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형식을 만드는 것이다.⁴⁰⁾

「아마토 민족을 중핵으로 한 세계정책의 검토」에 의하면 잡혼이 많은

37)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앞의 책, 328~329면

38)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 報國한다는 뜻.

39) 가와 가오루, 「총력전 아래의 조선 여성」, 김미란 옮김,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306면

40) Paul Virilio, 『전쟁과 영화 - 시각의 병참학』, 권혜원 옮김, 한나래, 2004, 131~132면.

것은 성충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잡혼 부부는 그 민족의 평균인보다도 사회적 지위나 지능이 열등”하고, 더구나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제도의 해체까지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혼혈아는 적응력이나 질병 저항력이 없어 대를 거듭할수록 원주민에 가까운 별종의 민족이 되어 지배민족으로부터 멀어지고, 게다가 “성격적으로 의외심, 사대주의, 무책임, 의지박약 또는 허무적, 성격 파탄적 성향을 지닌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황민화와 총동원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순혈주의를 무너뜨리는 성격을 일부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⁴¹⁾

또 강제연행으로 급증한 내지 거주 조선인과 일본여성의 통혼 증가를 경고하고 있다. 혼혈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래 지도적 민족 또는 정복민족의 남자가 피지도민 또는 피정복민의 여자를 처로 삼는 것이 지배관계의 원칙이지만 내지에서는 그 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지적한다. 사실 조선총독부가 표창했던 조선의 내선결혼부부도 8할 가까이가 조선남성과 일본여성의 결합이었다. 그리고 인구민족부의 전신인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가 조사했다는 천5백 쌍 가량의 내지 거주 조선인 남성과 내지인 여성의 통혼 사례를 검토하여 그 혼혈아는 “수치심이 없고 국가정신이 박약”하다고 했다. 또 조선인 남성을 “내지인으로 오인”하여 결혼한 경우가 많은 것이 “과도적인 내선일체론과 창씨개명에 기초한 비극적 측면”으로 묘사되고 있다.⁴²⁾ 따라서 <너와 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어야 한다.

식민자가 피식민자에게 동화를 강요하는 문화, 그 문화는 정말로 식민자의 문화인가? 원래는 식민자 자신이 동화되는 자이고 그들 자신의 동화 과정에서 생긴 고통을 망각하기 위하여 혹은 그것이 상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그 문화를 ‘나의 것’으로 하여 타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

41)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앞의 책, 331면

42) 위의 책, 330면

닌가? 식민주의의 폭력의 기원에는 식민자 자신과 그가 강제하는 문화 사이의 근원적인 비동일성이 있고 그 심연에서 주의를 돌리고자 여러 가지 언어행위에 의해, 그 언어행위를 성립시키는 제 조건을 가볍게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은 이 문화의 일체성을 타자가 믿도록 만들고 그 타자의 믿음을 통해 그들 자신들에게도 그 일체성을 믿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⁴³⁾

몇몇 적극적인 ‘친일론자’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민중이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동화’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외지인’인 조선인의 대다수는 ‘비(非) 국민’이 되는 셈이었다. 그렇다면 절대다수의 ‘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의 ‘식민체제’는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시기(戰時期)로 접어들면서 일제 당국은 여러 기만적인 논리와 테마고기를 동원하여 이 불안정성을 ‘안정성’으로 포장하면서 당면 전쟁을 수행하려 했지만, 극히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식민지 조선에서 완전히 불안정성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했다.⁴⁴⁾ 전 국민의 병사화에 소환되는 일차적 대상을 남성이었지만 그 남성은 자기동일성의 욕망을 여성에게 투사함으로써 여성을 이중적으로 타자화하는 중층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여성(성)은 기존 체제를 확인시켜 주는 기제로, 남성성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항상 양가적으로 작용해 왔다.⁴⁵⁾ 현실의 결핍에서 오는 불안은 결국 ‘국민-국가’를 가정의 대체물로 제기하고 싶은 욕망을 발생시킨다. 일제 파시즘의 편집증이 여성에게 관심을 쏟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여성이 큰 가족으로서의 ‘국민-국가’를 가능케 하는 중요 기원이 되기 때문이다.

43) 코마고메 타케시(駒込 武), 「일본의 식민지배와 근대성 - 중첩된 폭력」, 송태욱 옮김, 『흔적』 2호, 문화과학사, 2001, 259면

44) 변은진, 앞의 글, 209면

45) 김양선,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와 여성(성)의 전유 양상」, 『실천문학』 2002 가을호, 273면

5. 대체 가족으로서의 국민-국가

총동원체제의 확립과 함께 1938년 3월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개정은 ‘내선공학(內鮮共學)의 일원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과 똑같은 교육방침 아래 내선일체화 방침에 따라 황국신민의 훈련을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조선교육령 개정 이후의 여성 교육의 방침은 ‘부덕(婦德)의 함양을 통해 현모양처로서의 자질을 얻도록 하는 데 있었다. 여기서 는 여성의 역할이 천황을 위해 의심 없이 죽을 수 있는 황국신민을 만드는 곳, 곧 남자를 낳고 잘 키우는 장소인 가정으로 한정되었다⁴⁶⁾ 1930년대 말 이후의 전시 동원 시기에 ‘국가’의 ‘공공’에 대한 표방이 한층 강화되면서 여성과 가족이 중심이 된 사적인 영역도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은 사에 항상 앞서고, 사는 공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한다. 서구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찰나주의 이기주의로 통속화되었으며, 서구의 퍼머넌트나 루즈는 통속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통제되고 금지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세계의 모든 문화와 전선(戰線)은 지금 여성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말처럼 ‘전사(戰士)’가 된 여성은 ‘국민의 심신육성의 온상’인 가정에서 ‘2세를 기르는 씩씩한 어머니’가 되어야 했다. 이제 황국 여성은 깊은 모성애와 조국에 대한 경건한 정열을 가지고 전쟁에 헌신해야 하는 거룩한 군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강요받았다.⁴⁷⁾ 이때 일제의 천황과 황국신민의 관계는 ‘몸의 정치학’으로 정확하게 번역될 수 있었다.

왕은 몸 전체에 생기와 움직임을 주는 인위적인 영혼이고,
치안 관사와 법률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의 관리들은 인

46) 가와모토 아야(川本 綾),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심영희 외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 228 ~229면

47)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57면

위적인 **관절**이다. 모든 관절과 부분들이 왕과 연결되어 각각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움직이게끔 하는 **상과 벌**은 자연의 몸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들이다. 모든 구성원의 **부**와 **재산**은 힘이며, **살루스 포풀리** (Salus Populi), 즉 국민의 안전은 그 힘을 행사하는 목적이다.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하는 **교문관**들은 **기억**이며, **형평법**과 **법률**은 인위적인 **이성**과 **의지**다. **국론통일은 건강**이고, **내란**은 **몸이 아픈 것**이며, **내전은 죽음**이다. 마지막으로 이 정치적 몸의 각 부분들은 애당초 만들고 함께 모아 연합시킨 그 **협정**과 **규약**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내렸던 **인간을 만들자**라는 그 명령을 닮았다.⁴⁸⁾

‘국민 국가가 군사력과 생산력 증강을 국가 목표로 ‘국민’을 ‘인구’, 즉 병력과 노동력으로 환원할 경우 ‘병역’은 ‘국민화’의 열쇠가 된다. 그때 ‘국민’은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명예를 가진 사람’과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명예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 전자만이 ‘국민’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⁴⁹⁾

19.

거리에 묘사되는 감격의 풍경(구성)

거리란 거리에는 폭발하는 만세 소리, 휘날리는 깃발의 물결

‘축 입영’의 기치를 내세우고, 대오를 지어 큰길을 열 지어 가는 사람들

연도의 보도와 안전선 안에서 환송하는 시민과 출근길의 산업전사들.

(西龜元貞 <군인 아저씨>, 73면)

48) Thomas Hobbes, *Leviathan*, Harmondsworth : Penguin, 1968, 81~82면. (Maira Gatens, 「정치적 몸의(과) 육체적 대표성」, 조애리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105~106면에서 재인용)

49)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9, 26~27면

반 장 : 이 군대 내무령(內務令) 강령(綱領)에도 있듯이, 병영은 군인의 가정이다. 장교 하사관 병이 일체가 되어 정말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서로 도우며 유쾌한 생활을 보내는 곳이다. 즐거움, 괴로움, 뿐만 아니라 생사도 같이하는 것이다. 아무리 친형제라도 생사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가(一家)가 전원 자살이라도 하지 않는 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략)

34. 취사장 내부

하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증기로 찌는 커다란 고압 가마 커다란 통에 쌓인 금방 한 밥의 산. 설설 끓는 대형 솥에서 맛있어 보이는 잡탕 국물을 국자로 식통에 퍼 넣고 있다.

(西龜元貞 <군인 아저씨>, 79면)

<군인 아저씨>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병 축하 행사에 모인 군중들이 바로 ‘국민’으로 정의된다. 거리에 모여 있는 시민들과 산업 전사들은 일본의 국체(國體)를 수호하기 위해 성전(聖戰)에 뛰어들 지원병을 환호하며 같은 황국신민이라는 동질감을 획득한다. 천황을 공동의 아버지로 설정한 국민은 지원병을 매개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한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내무반장은 병영을 가정의 메타포로 확대하고 있다. 34번 취사장 씬은 병영의 취사장이 그대로 가정의 화목한 식사 공간으로 치환된다.

내선일체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자. 첫째, 내선일체는 ‘국체(國體)의 본의(本義)의 구현’으로 강조되고 있다. 두 번째, 내선일체란 ‘조국(肇國)의 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 세계의 대세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다. 독일, 이태리와 더불어 삼국동맹을 결성하고 있는 일본이 담당할 임무는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있는데 그 근본정신은 어디까지나 동양 고래(古來)의 사회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작게는 家 크게는 國으로 나아가는 바로 국가 본위의 정신이며, 그 가운데서도 일본은 一大家族國家로서 천황과 신민과의 관계에서 의(義)는 군신(君臣)간의, 정

(情)은 부자(父子)간의 기본으로 이것을 겸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하였다.⁵⁰⁾ <군인 아저씨>는 전시 동원 체제 하에서 황국과 국민의 관계 즉 군국주의 가정 메타포를 직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여성의 국민화’를 근대에서부터 이어지는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해석한다면, 전쟁이란 ‘국민화 프로젝트’ 과정 속의 일화(逸話: anecdote) 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촉진시키는 혁신이며 일종의 극한적 형태로써 이해된다. 근대 총력전은 국민 국가 최대의 사업이며 지정학적, 인구학적, 상징적 투쟁이다. 그때 국가는 전역화(全域化)를 목표로 삼아 사회의 국가화와 가정의 국가화 둘 다를 요구하게 된다.⁵¹⁾ 다음은 총독이 지원병의 가정에 보낸 편지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7. 인숙의 방

정희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총독의 편지를 채서 읽고 있다.

인숙과 채순, 공손하게 경청하고 있다.

“일단 입대하여 엄숙한 기율 밑에서 단련을 거치면, 입대 전과는 달리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훌륭한 젊은이로 변하여 세상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머니, 자매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야말로 군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비할 바 없는 양식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 남아(男兒) 일생의 사생을 건 순간에 용사의 눈동자 속에 떠오르는 것은 실로 따스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정희, 점점 감격이 차 올라 읽기를 중단하고

“이 뒤부터는 어머니가 읽으세요.”

인숙, 정희한테서 편지를 공손히 넘겨받는다.

50) 崔由利, 「日帝 末期(1938-45년) 「內鮮一體」論과 戰時動員體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15~16면.

51)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앞의 책, 20~21면

“감사한 편지야.”

정희, 보자기를 펼쳐, 친인침을 꺼낸다.

(西龜元貞 <군인 아저씨>, 66 면)

이처럼 전시 동원 체제하의 식민지 여성은 국가로부터 전사를 낳고 기르는 의무를 지닌 존재로 호명 받는다. 이때 국가가 여성을 주체로 호명하는 과정은 극단적인 독백주의 방식을 취한다. ‘여성’이라는 기표(記標)는 군국주의 담론에 의해 한정적인 기의(記意)를 갖도록 요구받는다. 이때 ‘여성’이라는 기표는 제국주의 전사를 낳아주거나, 그 전사가 떠난 후방에서 총후봉공(銃後奉公)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테면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구로 호명된다. 아이는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우연히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엄마의 배는 잠시 빌린 것’이라는 가부장제 사상의 그늘에 갇힌다. 그런 의미에서 군국주의 시대의 여성은 성모 피에타 상과 같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아들을 낳았고, 결국에는 아들의 시신을 가슴에 안고 있다. “전시(戰時) 중 여성에게 주어진 이미지는 전쟁 그 자체를 나타내 전의를 고양시키는 회화가 아닌 남자 아이를 안은 모성상, 즉 ‘성모자(聖母子)’ 계보에 들어가는 것이었다.”⁵²⁾ 황국신민으로서 조선의 여성은 전사를 출산하고 그 아들을 성전에 기꺼이 내보내야 한다. 그러나 조선에서 동원에 관한 법령 전부가 시행되었으나 보호에 관한 법령은 거의 시행된 바가 없었다.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동원의 대가로서의 모성 ‘보호’라는 ‘내지’에서의 ‘균형’이 식민지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모성 보호 없는 동원, 그리고 위안부로서의 대량 동원이라는 극히 불균형적인 형태로 실현되었다.⁵³⁾

52) 위의 책, 29면

53) 가와 가오루, 「총력전 아래의 조선 여성」, 김미란 옮김,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312면

①

여학생 일부와 최여사 걷고 있다. 음악과 교실 쪽에서 나온 미츠에와 백희가 최여사 쪽에 인사하러 온다. 가로수 사이를 걸으면서 최여사 말한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여성미에 대한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한 운동이에요.’ 최여사는 계속한다. ‘특히 지금부터 어머니가 되는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 강한 자손을 남긴다는 큰 역할이 있어요.’ 미츠에 등, 와 하고 소리 지른다. 최여사 열심히 설명한다 ‘정말로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 중에는 독신이 편하다고 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봉건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고 국가가 여성에 대해 현재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듣고 있는 미츠에 등 ‘최근 여성미에 대한 관념은 많이 변해 왔어요. 건강미, 굳건함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연습을 엄하게 시키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국가를 위해 꼭 참으면서 고생을 겪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이백희가 ‘그래요. 병사들 일을 생각해 봐야 하죠.’ 리드미컬하게 걷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 (밑줄 강조는 인용자)

(日夏英太郎, <너와 나>, 189면.)

②

히라마쓰, 천인침을 속옷 밑에 말아 넣으면서 군복을 입고 있는 야스모토가 옆에서 구시렁구시렁 돕고 있다. 마고, 아기의 사진을 살짝 꺼내보고는 몸에 단단히 간직한다. 이를 슬쩍 훑쳐 본 한 명이 “야, 마고다, 마누라님께 작별인사 확실히 올렸냐?”

마 고 : 음, 다음번에는 군인을 낳으라고 확실하게 주의 주고 왔지

(西龜元貞, <군인 아저씨>, 117면)

①에서 무용가 최여사는 여학생들에게 전시 체제 하의 여성의 덕목과

의무에 대해 계몽하고 있다. 황국의 자랑스러운 국민 그 중에서도 떳떳한 여성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갈 아들을 출산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미에 대한 정의는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여성의 아름다움은 남성 전사(戰士)를 순산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에서 나온다. ②에서 가문의 혈통을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유교적 가부장주의는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적인 가족이나 혈통은 존재할 수 없다. 천황이라는 대주체(大主體)를 중심으로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은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여성을 바라보는 제국주의의 시선은 양면적이다. 전사(戰士)를 출산하는 산모로서의 여성은 신성하고 성스러우며 매력적이고 전능하지만, 결혼하지 않거나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여성은 더럽고 역겹고 생존의 가치가 없게 된다.

우리는 모두 여성에게서 태어나는데, 존재의 출발점으로서의 어머니의 몸은 신성하면서도 더럽혀져 있고, 성스러우면서도 지옥과 같다 그것은 매력적이며, 역겹고, 전능하고, 따라서 살기가 불가능하다⁵⁴⁾

군국주의적 가부장주의라고도 할 만한 편향된 시선은 여성을 새로운 형태의 씨반이, 즉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황군(皇軍)을 생산해야 하는 출산용 도구로 치환시켜 버린다. 여성은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니라 '전쟁-기계'를 생산해야 한다. 신성한 여성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아들을 낳아주는 산모가 되어야 한다.

①

기노시타 : 반도의 청년들은 모두 굳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래의 국방의 제일선은 우리들이 수호할 거라는 결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54) Rosi Braidotti, 「어머니, 괴물, 기계」, 조애리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87면

백 희 : 정말로 저도, 반도인으로서 긍지가 높아져요.

에이스케 : 우리도 긍지가 높습니다.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령 지금 현지에 수만 명의 장정이 출정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금년 태어날 아이가 그만큼 줄어들지요. 금후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한편으로, 20년 30년 후의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보충을 우리 반도인이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병이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팽배한 애국정신으로 인해 필히 가까운 미래, 반도에도 징병령이 시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日夏英太郎 <너와 나>, 194 면)

②

소 좌 : 어쩐가. 장가들려나.

마쓰다 : 그 처녀 부모님 가계와 혈통은 어떻습니까

소 좌 : 몰라

마쓰다 : 부모님의 의향은 어떠세요

소 좌 : 몰라

마쓰다 : 그 처녀 성격은 어떻습니까

소 좌 : 몰라

마쓰다 : 그렇다면 저도 곤란합니다.

소 좌 : 자네는 자기 눈을 못 믿는가

마쓰다 : ……:

소 좌 : 나는 아무 말 않겠네

마쓰다 : 아내감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 좌 :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됐네. 하나 참고로 말해두는데, 그 덕에서는 자식을 지원병으로 보내네. 목하 출정의 영광에 기뻐하고 있는 덕일세.

마쓰다, 끄덕인다.

(八田尙之 <젊은 모습>, 250 ~251 면)

③

후미코 : 오늘은 남편 조종법 비결을 알려줄까.

영 자 : 꼭 가르쳐 주세요.

후미코 : 아아, 그보다 영자 비자금이라는 거 알아?

영 자 : 비자금이란 모르겠어요.

후미코 : 그게 꽤 중요해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금하는 거야.

영 자 : 어머, 그거 나쁜 일이잖아요.

후미코 : 그렇지 않아요. 집안에 갑자기 병자가 생기거나, 남편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됐거나 할 때 드리는 거야. 남자는 돈 있는 줄 알면 썩버리잖아. 그러니까 비밀로 저축하는 거야. 이게 아내가 할 일이에요.

영 자 : 내지 부인들은 다르네요.

후미코 : 여기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영 자 : 네, 공부해 보겠어요. (八田尚之, <젊은 모습>, 269면.)

錦 淑 : 전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알아주지 못하고 있었다니 전 제 자신을 너무 경멸하고 있었어요 전 웬지 갑자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저도 강하게, 강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강하게 아기를 껴안는다. E.O.

(佃順, <조선해협>, 320~321면.)

전시 일본의 여성 정책은 이중의 기대, 즉 ‘가족체계의 보존’과 ‘노동력 감소의 해결’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총후부인으로서 군국의 어머니가 되어 후방의 가족을 지키고 전쟁을 지원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일본의 여성 정책은 조선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것은 첫째 군국의 어머니로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천직으로 하며, 둘째, 근검절약과 저축

으로 국가의 경제를 부양하고, 전시 생산력 보충을 위한 노동력으로 참여하는 역할이었다.⁵⁵⁾ 결국 국가가 여성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차이와 역사가 지워지고 이것들이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도구로 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⁶⁾ 이는 가부장적 군국주의가 전쟁에 대해 갖는 불안과 공포심을 치유하고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완고한 정치학으로 기능한다.

국민문화의 구축이 권력부여의 한 형식이라고 한다면, 약자가 미학적 으로 처리됨으로써, 약자를 구경거리로 관찰함으로써 어떤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이 구경거리의 관객은 동정의 형식으로 막대한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고, 동시에 긍정적인 국민문화는 약자 자체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이 동정은 긍정적인 국민문화의 확고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나르시시즘이라는 배타적인 자기탐닉을 타자에 투사하는 것은 보는 주체의 위치를 형언할 수 없는 미적, 감정적 쾌락을 지닌 것으로서 안정시키거나 강력하게 하는 하나의 방책이 된다. 이런 쾌락은 약자와의 '연대'라는 환상을 통해, '통일된' 공동체 형성을 가져온다.⁵⁷⁾

일제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여성 역할의 핵심으로 간주했던 이유는 단순히 황군(皇軍)의 병력 보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국가라는 공동체의 척도로 삼았기 때문이다. 출산장려정책과 이에 대한 보상 등은 국가 권력이 가족과 개인의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치환시키는 방편이었고, 이처럼 공적 영역으로 환원된 가족은 이른바 '가족심(家族心)'이라 불리는 천황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 '가족심'은 가족과 국가를 동일시함으로써 국가도 가족처럼 자연적이고 본래적인 조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천황의 적자로서 식민지 주민을 국가

55) 이선옥, 앞의 글, 259면

56) Rey Chow, 앞의 책, 111면

57) 위의 책, 205~206면

정책에 동원해 내는 이데올로기였다.⁵⁸⁾

국민주의는 사회의 다른 아이덴티티들(예컨대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계급적, 성적, 역사적 아이덴티티)보다 우세하여 이러한 차이보다 큰 아이덴티티 속에서 포섭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포섭이 일시적으로 성취되었더라도 서로 다른 자각 집단에 의해 민족이 표상되는 방식은 매우 다르다. 민족에 대한 조화롭고도 단일한 목소리 대신에 우리는 모순되고 애매한, 서로 대항하면서 동시에 타협도 가능한 대위법적인 음성을 발견해야 한다.⁵⁹⁾ 그런 의미에서 지적이 “나는 (국가적인 것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타인(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국가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믿는다”는 말과 똑같다고 한 것은 민족의 가변성을 강조한 것이었다.⁶⁰⁾

국민주의는 세계에 연동된 부르주아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로서 계급투쟁에서의 일부 분파의 승리를 반영하는 형태인데 비해 민족주의는 그 국민 이데올로기의 국제주의적 확장에 대응하면서 제기된 자기 방어 이념이다. 이를테면 국민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호명된 주체를 정치적으로 표상한 것인 반면 민족(체)은 한편으로는 국민주의와 대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국민주의를 가능하게 한 모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일제가 식민지 조선 민중에게 회유하고 강요했던 ‘국민’과 ‘일선동조론’은 성취될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E.J. 홉스봄이 「1980년 이후의 국가와 내셔널리즘」이라는 글에서 지적한 ‘민족성’의 특징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58) 이선옥, 앞의 글, 260면

59) Prasenjit Duara,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문명기·손승희 옮김, 삼인, 2004, 31면.

60) Rey Chow, 앞의 책, 121면

민족성(ethnicity)은 그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압도적 다수를 동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호소하는 바가 충분히 애매하거나 사람들의利害와 전혀 관계가 없는 한에서만 그렇다.⁶¹⁾

비서구 식민지 민족주의는 일제시대 조선의 민족주의처럼 자신의 명확한 국가 형태를 갖지 않고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민족적 주체는 서구와 같은 국민국가에 의해 호출된 주체가 아니라 민족체 내지 에스니시티를 기반으로 구성된 주체라고 할 수 있다.⁶²⁾ 이때 식민지 주민으로서의 조선 여성은 양가성을 지닌 채 제국주의로부터 호명 받는다. 제국주의 식민 담론은 한편으로는 야만적이지만 매혹적인 미지의 영역, 개척과 개조의 대상인 식민지를 여성적인 자질과 동일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단위인 가족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여성을 ‘국민’의 자리로 호명한다.⁶³⁾ 이때 여성은 대체 가족으로서의 국가 형성의 기원이자 그 국가를 유지시키는 동력으로 재각인된다.

6. 맺음말

이 글은 1940년대 전반기 상영된 영화의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국민, 국가, 젠더’를 둘러싼 파시즘 담론을 분석하였다. 소위 신체제, 전시동원 체제 시기로 불리던 이 시기의 영화 정책은 전쟁 수행을 위해 모든 구성

61) 위의 책, 117면에서 재인용.

62) 박수연, 「국민문학, 시조와 민요시, 친일」,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88면

63) 김양선,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와 여성(성)의 전유 양상」, 『실천문학』 2002 가을호, 272면

원을 전쟁 상황으로 호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내선결혼’과 ‘징병제’가 대표적인 슬로건이었다. 영화는 이 슬로건을 위한 프로파간다에 복속되었고, 그런 만큼 영화의 내러티브와 이미지 구축은 파시즘 미학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먼저 전시동원체제 하의 각종 영화정책의 면모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 상영된 영화의 시나리오에 나타난 파시즘 담론의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시나리오에 나타난 파시즘적 욕망은 전쟁 수행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전사(戰士) 캐릭터의 구축, 내선결혼을 둘러싼 인종의 정치학, 대체가족으로서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 등으로 구현되고 있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동원체제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전 영역에 걸쳐 본격적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화의 영향력을 중시한 파시즘 정권은 영화 매체를 황국신민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파간다로 인식하여 주도면밀하게 통제하였다. 1934년 ‘활동사진영화취체법칙’, 1940년 ‘조선영화령’, 1941년 ‘신회사(新會社) 창립’, 1942년 ‘조선영사기 조작 취체 규칙’, 1942년 ‘영화기획심의회 개최’ 등 일련의 정책은 영화 매체를 철저히 일제의 전시 체제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조선인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징병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당시 일반 피식민지인들의 정서는 전쟁 자체에 회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전쟁 수행에 급급해진 일제로서는 결핍된 현실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공된 판타지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판타지 작업의 제일선에 영화 매체가 앞장서게 되었다. <거경전>과 <너와 나>에서 등장인물들은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戰士)로 표상되고 있다. <너와 나>는 성전(聖戰)을 위해 혈연의 정마저도 포기할 줄 아는 결연한 투사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젊은

모습>과 <너와 나>는 징병의 대상인 청년에서 벗어나 중학생이나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투철한 전투 의지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선전 영화는 그 메시지에 대한 강박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현실에 대한 리얼리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제가 추구했던 영화의 판타지가, 실제로는 조선에 초인과 전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시기 영화는 내선일체와 내선결혼의 선전을 통해 전력 증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러나 내선결혼을 통해 우수한 인종을 생산하고, 그 우수한 인종을 토대로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고자 했던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 본토에서조차 일본인과 조선인의 잡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징병제를 통한 조선인의 전력 증진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생학을 들어 일본과 조선의 평등을 주장하고, 내선결혼을 통한 두 민족간의 동조동근(同祖同根)을 증명하고자 했던 행위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해진 전투용 소모품을 생산하고자 했던 것이 실제 목적이었다.

<너와 나>, <젊은 모습>, <망루의 결사대>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의 전통, 역사, 풍습, 인종적 특성 등에 대해 예전과 다르게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영화들은 내선일체와 내선결혼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조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기본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시나리오는 현실적 정세와 정반대의 담론을 유포함으로써 내선일체를 통한 징병제 실시의 성공을 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의 목적은 내선일체를 합리화하고 의혹에 찬 식민지 민중의 내적 혼란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일제는 일본뿐 아니라 조선의 여성에게서 깊은 모성애와 황국에 대한 경건한 정열을 가지고 전쟁에 헌신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국민 국가’가 군사력과 생산력 증강을 목표로 했을 때 병역은 국민화의 지름길로 인식된다. 이때 ‘국민’은 ‘국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들에 한해서 그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군인 아저씨>에서 지원병 축하 행사에 운집한 군중들은 ‘국민’으로 호명된다. 이 작품은 전시동원 체제 하에서 황국과 국민의 관계, 즉 군국주의적 ‘가정(家庭)’ 메타포를 직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호명된 여성은 국가로부터 전사(戰士)를 낳아주고 전사로 길러주는 존재로 호명 받는다

주제어 : 파시즘, 국민-국가, 젠더, 우생학, 프로파간다, 영화통제, 판타지

참고문헌

- 가와 가오루, 「총력전 아래의 조선 여성」, 김미란 옮김, 『실천문학』 2002년 가을호, 290~313면
- 駒込 武, 「일본의 식민지배와 근대성 - 중첩된 폭력」, 송태욱 옮김 『흔적』 2호, 문화과학사, 2001, 211~262면.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김양선,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와 여성(성)의 전유 양상」, 『실천문학』 2002 가을호, 270~289면
- 김학수, 『스크린 밖의 영화사①』, 인물과사상사, 2002.
- 『內鮮一體와 佛教徒』, 『佛教』, 佛教社, 1940.
- 渡邊 淳世,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89면.
- 박수연, 「국민문학, 시조와 민요시, 친일」, 김재용 외,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 백문임, 「‘정치’의 심미화’ : 파시즘 미학의 논리」, 김철 외 엮음 『문학 속의 파시즘』, 삼인, 2001, 65~91면
- 변은진, 「조선인 군사동원을 통해 본 일제 식민정책의 성격」 『아세아연구』 제11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2003, 199~237면
- 上野千鶴子,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9.

- 小熊英二,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조현설 옮김, 소명출판, 2003.
- 이선옥, 「평등에 대한 유혹 여성 지식인과 친일의 내적 논리」, 『실천문학』 2002 가을호, 254~269면
- 이영일, 「영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총감』, 대한공륜사, 1976, 543~583면.
- 이재명 외 엮음, 『해방전(1940-1945) 상영 시나리오집』, 평민사, 2004.
- 이준식, 「일제 파시즘기 선전 영화와 전쟁 동원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118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2, 701~743면
- 이택광, 『한국문화의 음란한 판타지』, 이후, 2002.
- 정수완, 「일본 영화 속에 나타난 한국인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1~76면.
- 川本 綾, 「한국과 일본의 현모양처 사상 - 개화기로부터 1940년대 전반까지」, 심영희 외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1999, 211~244면
- 최석영, 「식민지 시기 '내선(內鮮) 결혼' 장려 문제」, 『일본학연보』 제9집, 일본연구학회, 2002, 259~294면
- 최유리, 「일제 말기 황민화 정책의 성격 - 일본어 보급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5, 234~258면
- 최유리, 「일제 말기(1938-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1~205면.
- 高崎隆治, 『文學のなかの朝鮮人像』, 青弓社(東京), 1982.
-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東京), 2002.
- 高島金次, 『朝鮮映畫統制史』, 朝鮮映畫文化研究所(京城), 昭和8(1943).
- 南宮鎮, 『近代日本と朝鮮人像の形成』, 勉誠出版(東京), 2002.
- 佐藤忠男, 『日本 映畫史 第2巻 (1941-1959)』, 岩波書店(東京), 1997.
- Chow, Rey., 『원시적 열정』, 정재서 옮김, 이산, 2004.
- Duara, Prasenjit.,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문명기·손승희 옮김, 삼인, 2004.
- Gatens, Moira., 「정치적 몸의(과) 육체적 대표성」, 조애리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104~116면
- Gramsci, Antonio., 『대중 문화론』, 박상진 해제, 책세상, 2003.
- Rosi Braidotti, 「어머니, 괴물, 기계」, 조애리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78~103면
- Virilio, Paul., 『전쟁과 영화 - 시각의 병참학』, 권혜원 옮김, 한나래,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Discourse of Fascism of Scenarios in the First Half of
the 1940's

Park, Myeong-jin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into the discourse of scenarios under imperialist Japanese fascism in the first Half of the 1940's. Imperialist Japan brought on the Pacific War, and made use of cinema to mobilized the Korean people in a battlefield. Imperialist Japanese cinema stressed the 'Naesunilche(one body of Korea and Japan)' and 'the conscrip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making Korean internalize a ideology of nation-state.

Since the Chinese-Japanese War, Imperialist Japan controlled art and culture through 'system of mobilization army in wartime. The cinema in colony fell a victim to imperialist Japanese fascism for the victory in war. The various cinematic policy of imperialist Japanese set a goal of instigating Korean to participate in the Pacific War. According to this circumstances, scenarios in the first Half of the 1940's sunk to an instrument of propaganda to admire the upsurging of fighting spirit, militarism, and the conscription system.

<A story of a big whale>, <You and I>, <A young figure> made characters, persons who regard their death in battle for the king of Japan as honor, stand on stage. The characters in cinema do not fear death in battle entirely, and persons around protagonist incite him to participate in a war. Protagonist in these scenario is a character of strong will, therefore they can renounce affection about blood relation for the king of Japan. These combatant image was nothing but an instrument to suppress dissatisfaction of Korean about war.

These scenario maintained that the Korean and a Japanese are same race, and that two races must give birth to a dominant descendant through a mixed marriage. <A death band on watchtower> described a Korean police more talented and faithful man than a Japanese police. And <You and I> described a Korean tradition, culture, identity as superiority. But Japan looked at a mixed marriage from a negative point of view, and the

Korean understood that sardonically. Imperialist Japan dreaded that their racial pedigree was soiled by a mixed marriage. These scenarios were nothing more than making a fantasy that satisfy lack of Japanese desire fully.

Scenarios in the first Half of the 1940's regarded Korean Women as a 'nation' in order to mobilized the Korean people in a battlefield. But the discourse of Fascism distorts identity of Korean women by regarding them as an instrument of being delivered of a soldier.

Scenarios at this time described Korean women as not a subject able to hold communion with their-self but a subject controlled by a imperialistic ideology. Moreover, these scenarios present barracks as a newly substituted family by likening an army to a home. Scenarios at this time undertook a function of ideology that forms 'nation' in order to mobilized the Korean people in a battlefield. Nevertheless, the ideology of scenarios in the first Half of the 1940's hints gaps that exist in the real world paradoxically by exaggerating and distorting a social phenomenon out of existence.

Keyword : fascism, nation-state, gender, eugenics, propaganda, control of cinema, fantasy

접 수 일 : 2005년 2월 26일
심사기간 : 2005년 3월 1~25 일
게재결정 : 2005년 4월 9 일(편집위원회)